



필리핀 한국 상공회의소 뉴스 KOREAN CHAMBER OF COMMERCE PHILIPPINES NEWSLET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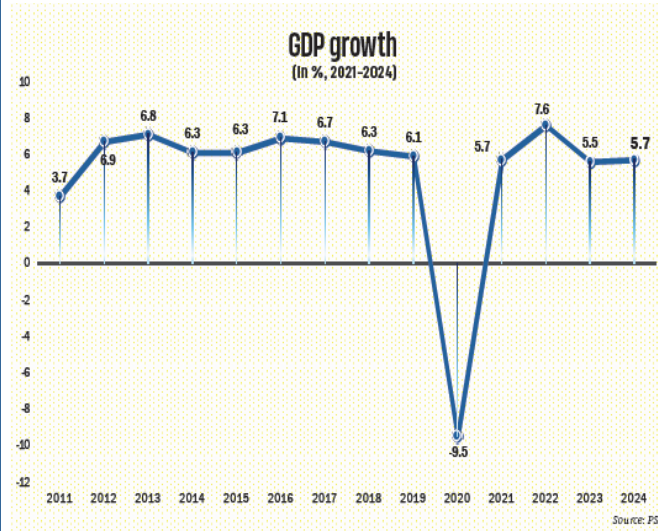
June 2025 Issue | Vol. 42

SPECIAL POINTS OF INTEREST

- 필리핀 경제, 2분기에도 여전히 성장세 지속될 것으로 전망
— page 1-2
- 트럼프 관세 마감 시한에 아시아 수출 급증...무역 적자 확대
— page 2-3
- 필리핀을 아세안 최고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치안과 인프라 확충이 필요
— page 3
- ‘필리핀, 여전히 백만장자 유치 상위 국가 중 하나’ — page 4-5
- DEPDv: 제19대 의회 폐회... 우선 법안 7건 통과 — page 5-6
- 35개 단체, ‘코넥타동 피노이 (Konektadong Pinoy) 법안’ 서명 촉구 — page 6-7

필리핀 경제, 2분기에도 여전히 성장세 지속될 것으로 전망

June 25, 2025 | Ian Nicolas P. Cigaral | Philippine Daily Inquirer



필리핀 경제는 2분기에 완만한 반등을 할 것으로 보이며, 민간 분석가들은 분기 말 중동 분쟁의 격화보다는 인플레이션 완화, 국내 수요 개선, 그리고 글로벌 무역 우려 감소에 더 주목하고 있다.

S&P 글로벌 레이팅은 화요일, 필리핀의 2025년 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5월의 5.7%에서 5.9%로 상향 조정했다.

한편, 아시아태평양대학교(UA&P)는 최신 ‘마켓 콜(Market Call)’ 보고서에서 필리핀의 2분기 성장률을 5.6%로 전망했는데, 이는 올해 1분기에 기록된 5.4%의 성장률보다 더 빠른 수치다.

S&P 글로벌 레이팅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빈센트 콘티(Vincent Conti)는 이번 상향 조정이 미국과 중국 간 양자 관세가 급격히 인하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최근 미국 정부가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한 보복 관세를 일시 중단한 데 따른 조치다.

콘티는 “이 조치는 글로벌 무역과 성장에 대한 불확실성을 다소 줄여주었다”고 말하며, 필리핀은 여전히 외부 역풍에 직면해 있지만 비교적 견조한 국내 수요로부터 혜택을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S&P, 견조한 수요 지속 전망

S&P의 보고서 ** ‘아시아-태평양 경제 전망: 회복력은 국가마다 다를 수 있다(Economic Outlook Asia-Pacific: Resilience May Vary)’ **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지역 경제들이 미·중 갈등 재점화에 여전히 취약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필리핀과 인도는 상품 수출 의존도가 낮아 비교적 더 잘 보호받는 국가로 지목했다.

S&P 글로벌 아시아-태평양 수석 이코노미스트 루이스 쿠이즈(Louis Kuijs)는 “국내 수요는 비교적 견조하게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수요가 전반적인 경기 둔화를 얼마나 상쇄할 수 있을지는 각국의 수출 의존도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UA&P도 유사한 전망 제시

UA&P의 보고서도 이 같은 견해를 강화하며, 목표치보다 낮은 인플레이션, 인프라 지출의 가속화, 고용 창출 확대에 기반해 국내 경제 전망이 “조금 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2분기 경제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5.6%로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대외 부문도 완만한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국내 수요 확대를 저해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은 5월에 1.3%까지 하락하며 6년 만의 최저치를 기록했고, 올해 들어 현재까지의 평균 인플레이션은 1.9%로, 필리핀 중앙은행(BSP)이 설정한 2~4%의 목표 범위보다 크게 낮았다. [Cont. page 2]

필리핀 경제, 2분기에도 여전히 성장세 지속될 것으로 전망

[Cont. from page 1]

S&P는 현재 올해 연간 인플레이션 평균치를 2.3%로 전망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 압력과 대외 성장 리스크의 완화가 추가적인 통화정책 완화의 길을 열어주고 있다고 밝혔다. 콘티는 “글로벌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BSP(필리핀 중앙은행)는 금리를 인하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BSP는 최근 기준금리를 25bp(0.25%포인트) 인하해 5.25%로 조정했으며, 2025년 인플레이션 전망치도 기존 2.4%에서 1.6%로 하향 조정했다. S&P는 BSP의 정책금리가 2025년 말까지 5%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재정 부문

재정 측면에서 UA&P는 인프라 지출의 가속화를 강조했다. 예산관리부(DBM)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인프라 지출은 2,618억 페소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0.8% 증가한 수치다.

2025년 4월 말 기준 전체 공공지출은 1조9,320억 페소로 13.57% 증가했으며, 이는 5월 12일 중간선거를 앞둔 선거 관련 지출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긍정적인 2분기 지표에도 불구하고, S&P와 UA&P 모두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과 글로벌 지정학적 불안정성에 따른 환율 하락 압력 등 여전히 하방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UA&P는 “이스라엘-이란 갈등이 지속되고 BSP의 금리 인하로 미국 연준과의 금리 차가 확대됨에 따라, 3분기에는 폐소화가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휴전 선언 이후 단기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는 완화될 수 있다. S&P와 현지 분석가들은 중동 지역의 평온이 유지될 경우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이 줄고, 폐소화에 대한 하방 압력도 완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여전히 도전 과제가 남아 있지만, 분석가들은 필리핀 경제가 회복세를 되찾고 있는 징후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는 견조한 국내 수요, 재정 모멘텀, 그리고 우호적인 인플레이션 환경에 힘입은 것이다.

Source: <https://malaya.com.ph/business/business-news/ph-economy-seen-still-gaining-pace-in-q2/>

트럼프 관세 마감 시한에 아시아 수출 급증...무역 적자 확대

June 24, 2025 | Bloomberg | BusinessWorld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상호주의’ 관세 마감 시한을 앞두고 미국 수입업자들이 재고 확보에 나서면서, 미국의 대(對)아시아 무역적자가 확대되고 있다.

최근 몇 주간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베트남, 대만, 태국은 모두 5월 미국으로의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의 대미 수출도 지난달 최고치에 근접했으며, 월요일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6월 초에도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출 급증은 전통적인 연간 패턴을 뒤집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아시아 공급업체들은 연말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하반기에 미국으로 수출을 늘려왔지만, 이번에는 7월 초부터 시작될 수 있는 미국의 새로운 관세 위협으로 인해 기업들이 가능한 한 빨리 물품을 선적해 미국으로 보내고 있다.

5월 한 달간 베트남과 태국의 대미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5% 증가했고, 대만의 수출은 무려 90% 가까이 급증했다. 이러한 역사적인 수출 증가세는 이번 주 발표될 미국의 5월 무역 통계에 반영될 것으로 보이며, 트럼프 대통령과 아시아 국가들 간의 관세 협상에 복잡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올해 들어 미국의 무역적자는 워싱턴의 관세 및 무역 정책 변화에 기업들이 대응하는 과정에서 급격히 확대되었다. 유럽으로부터의 의약품 수입 급증도 적자 확대에 일부 기여했지만, 아시아 국가들이 가장 큰 단일 원인으로 꼽힌다.

5월 미국의 무역적자는 91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2025년 들어 지금까지의 누적 적자는 거의 6,43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팬데믹 기간에 기록했던 같은 시점 기준 사상 최대치를 훨씬 넘어선 수치다.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7월 초 아시아 각국에 대해 사상 최고 수준의 관세를 부과한다면, 이번 수출 급증은 빠르게 반전될 수 있으며, 이는 아시아 전역의 경제 성장에 타격을 줄 수 있다. [Cont. page 3]



Operations at a container terminal at Haiphong Port in Vietnam. -- Photographer: Linh Pham/Bloomberg

트럼프 관세 마감 시한에 아시아 수출 급증...무역 적자 확대

[Cont. from page 2]

지난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는 무역 긴장 고조를 이유로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했다. 21개 회원국들의 경제성장률은 2.6%로 예상되며, 이는 3월에 제시된 3.3%보다 낮은 수치다.

이러한 정책 불확실성은 이미 중국과의 무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제네바에서 이달 중순 타결된 관세 휴전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대미 수출은 5월에 감소했다. 그러나 이는 전체 상황을 반영하지는 않을 수 있다. 해당 합의에서 일부 관세가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수입세는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일부 수출업체들은 ‘원산지 세탁(origin washing)’ 이라고 불리는 방식으로 제3국을 경유해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중국 기업들은 또한 수출을 다른 시장으로 전환하거나 자국 내 판매를 늘리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수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경우, 부동산 경기 침체와 부진한 내수로 인한 성장 둔화를 상쇄하는 데 중요한 외국 수요가 약화되면서 중국의 경제성장에 타격을 줄 수 있다.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도 미국과의 협상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높은 관세 인상을 피하지 못한다면, 머지않아 비슷한 성장 둔화를 겪게 될 가능성이 있다.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bloomberg/2025/06/24/681031/trump-tariff-deadline-spurs-asia-export-surge-wider-trade-gaps/](https://www.bworldonline.com/bloomberg/2025/06/24/681031/trump-tariff-deadline-spurs-asia-export-surge-wider-trade-gaps/)

필리핀을 아세안 최고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치안과 인프라 확충이 필요

June 25, 2025 | Louella Desiderio | The Philippine Star



Victor Lim

STAR / File

마닐라, 필리핀 — 필리핀을 동남아시아의 주요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치안 상황 개선과 인프라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필리핀중국상공회의소연합회(FFCCCII)가 밝혔다.

FFCCCII의 빅터 림 회장은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필리핀을 아세안의 대표 관광지로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내무정부(DILG) 존빅 레물라 장관의 구조적 문제 해결 추구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필리핀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환대 문화, 숨 막히게 아름다운 섬들, 영어 구사 능력, 활기찬 예술 및 엔터테인먼트 분야 등에서 이웃 국가들보다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관광객 유치에서는 뒤처지고 있다” 고 말했다.

필리핀은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 595만 명을 유치했는데, 이는 태국의 3,600만 명, 말레이시아의 2,500만 명에 비해 훨씬 낮은 수치다.

빅터 림 회장은 “이것은 매력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 부족의 문제”라며 “여행객들은 필리핀의 아름다움에 의문을 갖는 것이 아니라, 안전에 의문을 갖는다” 고 말했다. 그는 “범죄, 정치적 혼란, 그리고 처벌받지 않는 문화에 대한 인식이 우리 국가의 글로벌 이미지를 어렵게 하고 있다” 고 덧붙였다.

그는 필리핀이 주변국들과 경쟁하려면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치안은 국가적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고 림 회장은 말했다.

“FFCCCII는 특히 관광지 중심으로 전개될 레물라 장관의 강력한 전국적 치안 강화 캠페인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비즈니스 커뮤니티도 내무부(DILG)의 이니셔티브를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 고 밝혔다.

FFCCCII는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인프라와 연결성 개선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원활한 여행을 위해서는 현대적인 공항, 효율적인 교통망, 디지털 기반 관광 서비스가 필수” 라고 림 회장은 말했다.

그는 또한 중국, 홍콩, 한국,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들로부터의 관광객 및 투자자 유치를 위해 비자 절차 간소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국가는 아직 활용되지 않은 막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림 회장은 보안 문제 해결을 넘어서, 국제 미디어 속 필리핀에 대한 내러티브도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명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지금은 행동할 시간입니다. 세계가 단지 우리의 아름다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없이 직접 체험하고 반복해서 찾도록’ 함께 만들어 갑시다,” 라고 그는 말했다.

[Source: https://www.philstar.com/business/2025/06/25/2453016/peace-and-order-infrastructure-needed-make-philippines-top-asean-tourist-destination](https://www.philstar.com/business/2025/06/25/2453016/peace-and-order-infrastructure-needed-make-philippines-top-asean-tourist-destination)

‘필리핀, 여전히 백만장자 유치 상위 국가 중 하나’

June 25, 2025 | Cai U. Ordinario | BusinessMirror

헨리 앤 파트너스 (Henley & Partners)의 ‘2025년 글로벌 부유층 이동 보고서 (Wealth Migration Report 2025)’에 따르면, 필리핀은 평균 이상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덕분에 고액 자산가들이 선호하는 국가로 떠오르고 있다.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4년까지 필리핀 내 백만장자 수는 32% 증가했다. 현재 필리핀에는 총 1만 2,800명의 백만장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순투자가능자산이 1억 달러 이상인 ‘센티밀리언장자

(centimillionaire)’가 70명, 억만장자는 12명으로 집계됐다.

헨리 앤 파트너스 동남아시아 총괄 매니징 디렉터 스콧 무어 (Scott Moore)는 화요일 브리핑에서 “어느 나라든 고액 자산가들에게 중요하다”는 것은 그 나라의 경제 발전과 전반적인 경제 건강성을 나타내는 신호”라며, “만약 한 나라에서 새로운 백만장자가 생겨나고 있다면, 이는 경제가 성장 중이며 좋은 기회들이 존재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무어는 이어 “필리핀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부자들을 끌어들이는 상위 국가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여전히 개발도상국으로서 백만장자들에게 매력적인 목적지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무어는 “필리핀은 사람들이 와서 사업을 시작하고, 선진국에서는 불가능할 수도 있는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거대한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올해 필리핀에서 약 50명의 백만장자가 이탈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는 주변국과 비교하면 매우 미미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베트남은 올해 300명의 백만장자가, 인도네시아는 250명의 고액 자산가가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무어는 부유한 가족들이 해외로 이주할 때는 가족, 특히 자녀들의 미래와 사업 확장 기회를 고려해 다양한 선택지를 모색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녀 혹은 본인의 해외 취업 기회를 염두에 두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50명의 이탈은 이 지역 내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매우 미미한 수준입니다. 베트남에서 300명, 인도네시아에서 250명이 이탈하는 것이 훨씬 더 우려할 만한 상황입니다. 이 나라들이 리스트 상단에 있습니다. 필리핀은 주변국들과 비교해 보면 훨씬 적은 수를 잃고 있는 셈입니다,”라고 무어는 강조했다.

무어는 세계 부유층 및 그 가족들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필리핀은 싱가포르나 태국과 같은 이웃 국가들의 모범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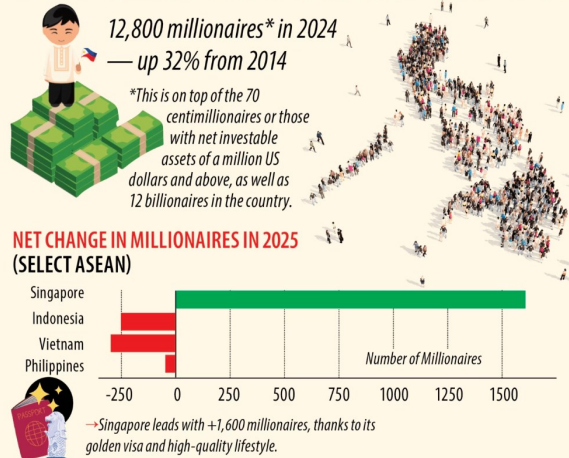
싱가포르는 올해 약 1600명의 백만장자(자산 총액 약 89억 달러)를 유치할 것으로 예상되며, ‘골든 비자(golden visa)’제도와 백만장자 혜택 덕분에 지난 10년간 백만장자 수가 62% 증가했다.

태국 역시 올해 최대 450명의 백만장자를 유치할 것으로 보이며, 해외소득에 대한 면세 혜택, 양질의 인프라, 그리고 좋은 생활환경을 찾는 부유한 외국인들을 위한 다양한 유인책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된다.

무어는 “싱가포르는 글로벌 자산 유치에 있어 늘 기대 이상을 해내는 나라입니다. 태국도 부유한 외국인을 위한 훌륭한 세계 혜택과 삶의 질,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이들이 이주하기에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매력적인 요소들이 많습니다”라고 말했다.

[Cont. page 5]

PHL WEALTH STATISTICS AND MILLIONAIRE GROWTH



HOW THE PHILIPPINES CAN COMPETE FOR HIGH-NET-WORTH MIGRANTS

- Improve investor visa processes
- Emulate best practices from neighbors
- Provide lifestyle and business incentives
- Establish high-quality infrastructure and services
- Promote the Philippines as a regional base

"In terms of relevance for high-net-worth individuals in any country, it just signals economic progress and general health of the economy. If a country can create new millionaires, it means that the economy is growing and there's good opportunities."

— Scott Moore, Henley & Partners



BM Graphics: Ed Davard

‘필리핀, 여전히 백만장자 유치 상위 국가 중 하나’

[Cont. from page 4]

아시아 외 지역에서는 아랍에미리트(UAE)가 기준이 되고 있으며, 올해 9,800명의 백만장자가 이주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 96%가 두바이로 이동할 전망이다.

무어는 “두바이는 부유층을 위한 놀라운 인프라와 라이프스타일을 제공하며, 실제로 이들을 위한 도시로 설계된 곳”이라며, “UAE는 소득세가 없고 법인세도 낮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필리핀에도 투자자 비자가 있긴 하지만, 비자 제도는 항상 개선의 여지가 있다. 이것이 바로 헨리앤파트너스가 하는 일이며, 우리는 필리핀에 정착하려는 고액 자산가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정부에 조언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무어는 “비자 신청 절차가 간단할수록 더 좋다”며 “만약 그 절차가 더 빨라지고, 원격으로도 가능해진다면, 국내외 고액 자산가들에게 훨씬 더 매력적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글로벌 관점에서 보면, 올해의 부유층 이주 흐름은 세계 각국 간의 격차 심화를 반영하고 있다.

영국은 올해 1만6,500명의 백만장자를 잃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중국(7,800명 이탈)을 처음으로 추월하는 수치다.

인도는 순손실 3,500명, 러시아는 1,500명을 잃을 것으로 예측된다. 주요 유럽국가들도 손실이 예상되며, 프랑스는 800명, 스페인은 500명, 독일은 400명, 아일랜드는 100명, 노르웨이는 150명, 스웨덴은 50명의 백만장자를 각각 잃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러한 글로벌 부의 재배치로 수혜를 보는 국가들도 있다. UAE는 유입 예상 순위 1위이며, 그 뒤를 이어 미국이 7,500명의 백만장자를 유치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 밖에 스위스(3,000명), 이탈리아(3,600명), 포르투갈(1,400명), 그리스(1,200명), 사우디아라비아(2,400명)도 세제 혜택과 삶의 질로 인해 부유층의 주요 이주 대상으로 꼽히고 있다.

이 데이터는 투자 이민 프로그램 통계(시민권 및 골든 비자 포함), 투자 이민에 대한 문의 및 신청 현황, 뉴월드웰스(New World Wealth)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15만 명 이상의 고액 자산가 추적 정보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또한, 1억 달러 이상을 보유한 이들이 설립하는 패밀리 오피스, 핵심 시장의 부동산 등기부를 통한 고급 부동산 구매자 추적, 거주지 변경을 보여주는 기업 등록 기록, 그리고 고액 자산가들의 이주 흐름을 보여주는 국제 이사업체들의 통계 등을 종합해 수집한 것이다.

Image credits: BM Graphics: Ed Davad

Source: <https://businessmirror.com.ph/2025/06/25/phl-still-among-top-drawers-of-millionaires/>

DEPDev: 제19대 의회 폐회...우선 법안 7건 통과

June 25, 2025 | Ted Cordero, GMA Integrated News | GMA News Online



DEPDev Sec. Arsenio Balisacan
NEDA Sec. Arsenio Balisacan/
File photo/Ted Cordero, GMA
Integrated News

마르코스 행정부의 7개 우선 입법안이 이달 초 폐회한 제19대 의회에서 통과됐다고 경제계획개발부(DEPDev)가 수요일 밝혔다.

DEPDev는 성명을 통해, 2025년 6월 11일 제19대 의회가 산회되기 전 통과된 해당 법안들로 인해, 입법-행정부 정책조정위원회(LEDAC)가 설정한 공동 입법 과제(Common Legislative Agenda, CLA)에 따라 승인된 우선 입법안의 수가 총 40건에 이르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경제계획개발부는 “이번에 법제화가 확정된 40건의 법안은 라모스 행정부 시기의 제10대 의회 이후 가장 많은 우선 입법 조치가 통과된 사례”라고 밝혔다.

특히, 상원과 하원은 다음 7개 우선 법안의 조정된 최종안을 비준했다:

- 정부 최적화법(Government Optimization Act)
- 외국인 투자자의 사유지 임대 자유화법
- 전자정부법(E-Governance Act)
- 코넥타동 피노이 법(Konektadong Pinoy Act) [Cont. page 6]

DEPDev: 제19대 의회 폐회...우선 법안 7건 통과

[Cont. from page 5]

- 필리핀 바이러스학연구원 설립법 (Virology Institute of the Philippines)
- 가속화·개혁된 도로용지 확보법 (Accelerated and Reformed Right-of-Way : ARROW Act)
- 대규모 금속 광산을 위한 강화된 재정 제도 법 (Enhanced Fiscal Regime for Large-Scale Metallic Mining Act)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이 서명하면, 이 7개 법안은 이미 CLA(공동 입법 과제) 아래에서 제정된 33개 조치에 추가되어 “총 40건” 이 된다고 DEPDev는 밝혔다.

“이번 성과는 상원과 하원 간의 강화된 협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모든 필리핀 국민의 더 밝은 미래를 위한 국가 입법 의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준 프란시스 에스쿠데로 상원의장, 후안 미겔 수비리 전 상원의장, 그리고 페르디난드 마르틴 로무알데즈 하원의장께 진심으로 감사를 전합니다.” 라고 경제계획개발부(DEPDev) 장관 아르세니오 발리사칸은 말했습니다.

제정된 33건의 법안에는 필리핀 민관협력법(Public-Private Partnership Code of the Philippines), 기업 회복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제 인센티브법(CREATE MORE 법), 부동산 평가 및 과세 개혁법, 자본시장 효율성 제고법, ‘바얀을 위한 일자리 법(Trabaho Para sa Bayan Act)’, 그리고 ‘타탁 피노이 법(Tatak Pinoy Act)’ 등 주요 경제 및 세제 개혁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육을 포함한 사회개발 부문에서도 핵심적인 조치들이 입법화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학업 회복 및 접근 가능한 학습 프로그램법(Academic Recovery and Accessible Learning Program Act), 산업기반 교육 및 훈련 체계법(Enterprise-Based Education and Training Framework Act), 그리고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신농지 해방법(New Agrarian Emancipation Act), 농업 경제사범 방지법(Anti-Agricultural Economic Sabotage Act), 농업 관세화법 개정안 등이 제정되었습니다.

발리사칸 장관은 “다가올 제20대 의회를 앞두고, 우리는 입법 의제 추진의 모멘텀이 계속되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DEPDev는 앞으로 보다 효율적인 거버넌스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의 일환으로, 수자원부 설치법안과 국토이용기본법(National Land Use Act)의 통과를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DEPDev는 과거 국가경제개발청(NEDA)으로 알려졌으며, 1992년부터 대통령 자문기구인 입법-행정부 정책조정위원회(LEDAC)의 주 사무국 역할을 해왔습니다. LEDAC는 국가 경제 목표 실현에 필수적인 정책과 프로그램을 자문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 RSJ, GMA Integrated News

Source: <https://www.gmanetwork.com/news/money/economy/950473/depdev-7-priority-bills-passed-as-19th-congress-adjourns/story/>

35개 단체, ‘코넥타동 피노이(Konektadong Pinoy) 법안’ 서명 촉구

June 25, 2025 | Justine Irish D. Tabile | BusinessWorld

35개 단체는 수요일, 페르디난드 R.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에게 데이터 전송의 오픈 액세스 법안(Open Access in Data Transmission), 즉 코넥타동 피노이(Konektadong Pinoy) 법안에 서명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해당 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을 요구하는 강력한 로비 활동이 이어지고 있지만, 제기된 우려는 “근거 없는 주장” 이라고 일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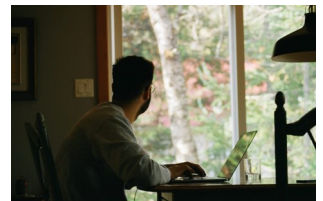
“일부 단체들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대통령에게 ‘코넥타동 피노이’ 법안을 승인해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하며, 왜 필리핀에 이 법이 필요한지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라고 이들 단체는 공동 성명에서 밝혔다.

이들은 “우리는 서명한 단체로서 ‘코넥타동 피노이’ 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촉구합니다. 이 획기적인 입법은 인터넷 접근을 민주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며, 이는 현 행정부의 가장 큰 유산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덧붙였다.

이 단체들은 ‘코넥타동 피노이’ 법안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주장에 대해,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법안은 네트워크 제공업체들이 국제 기준에 기반한 사이버보안 조치를 준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당 법안은 사이버보안 성과 감사(cybersecurity performance audit)를 의무화하고, 이를 운영 지속 및 허가 갱신의 요건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코넥타동 피노이 법안은 외국 정부가 통제하거나 국영 기업이 데이터 전송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들은 강조했다.

[Cont. page 7]



STOCK PHOTO | Image by Yasmina H from Unsplash

35개 단체, ‘코넥타동 피노이(Konektadong Pinoy) 법안’ 서명 촉구

[Cont. from page 6]

이들은 “법안은 마침내 상호연결성과 인프라 접근에 있어 국가 안보를 고려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35개 단체는 6월 9일 국회에서 최종 승인된 이 법안이 “필리핀 국민을 열악한 인터넷 환경이라는 족쇄에서 해방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서는 “필리핀은 아시아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인터넷 연결 수준에서 뒤처져 있다. 최신 자료에 따르면, 전국 바랑가이의 45.5%에 해당하는 약 19,000개 바랑가이에 아직도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들은 세계은행(World Bank)의 자료를 인용하며, “인터넷 접근의 불평등은 필리핀 국민들이 디지털 일자리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게 한다”고 밝혔다.

또한 “확대되는 디지털 격차는 전자상거래, 전자정부, 온라인 교육, 인공지능 접근을 수백만 명의 필리핀 국민과 취약계층에게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한 해당 법안이 획기적으로 인터넷 비용을 줄이고, 소규모 서비스 제공자들이 자체 인프라를 구축해 지역 사회에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전체적인 서비스 확산을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2년, 필리핀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인터넷 접근성이 낮은 국가”로 꼽혔으며, 당시 5천만 명 이상의 잠재 이용자들이 기본 인터넷 요금제를 감당할 수 없었다. 이후 필리핀은 라오스와 동티모르를 추월했다.

이 법안은 또한 “데이터 전송 산업의 장벽을 허무는 결정적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이 단체들은 “넓고 제약이 많은 법률들이 케이블 운영자, 지역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등 소규모 사업자들과 신생 기업들이 광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확장하는 데 있어 매우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넥타동 피노이(Konektadong Pinoy)는 경쟁을 촉진하고 시장을 활성화하며, 심지어 농촌 바랑가이에든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기존의 불균형한 구조를 바꿔놓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단체들은 “해당 법안이 국회와 행정부의 철저한 검토를 거쳤기 때문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법안은 거의 10년에 걸친 심도 깊은 논의와 세 차례에 걸친 국회의 심사를 통해 다양한 개선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요 산업 부문의 권위 있고 신뢰받는 기관들이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는 점은 이 법안이 국가의 시급한 디지털 수요에 효과적으로 부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이번 공동 성명에는 다음과 같은 산업 단체들이 서명했다: 필리핀 분석 및 인공지능 협회(Analytics & AI Association of the Philippines), 국가 기술 혁신 연합(Alliance of Tech Innovators for the Nation), 필리핀 고용주 연맹(Employers Confederation of the Philippines), 핀테크 얼라이언스(Fintech Alliance.PH), 필리핀 인터넷 및 기술 협회(Internet and Technology Association of the Philippines, Inc.), 마할리카 인터넷 익스체인지(Maharlika Internet Exchange), 필리핀 국가 연맹(National Confederation of the Philippines), 필리핀 수출업자 연맹(Philippine Exporters Confederation, Inc.).

해외 상공회의소로는 필리핀 미국 상공회의소(American Chamber of Commerce of the Philippines, Inc.), 캐나다 상공회의소(Canadian Chamber of Commerce of the Philippines, Inc.), 유럽 상공회의소(European Chamber of Commerce of the Philippines), 필리핀 일본 상공회의소(Japanese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of the Philippines, Inc.), 그리고 필리핀 한국상공회의소(Korean Chamber of Commerce of the Philippines, Inc.)도 서명했다.

이 밖에도 필리핀 최고정보책임자포럼(Chief Information Officers Forum, Inc.), CIO 포럼 재단(CIO Forum Foundation, Inc.), 필리핀 국가 ICT 연맹(National ICT Confederation of the Philippines), 필리핀 시의원 연맹(Philippine Councilors League), 필리핀 지방 보건관 협회(Provincial Health Officers Association of the Philippines, Inc.) 등이 공동 성명에 참여했다.

기술 관련 단체로는 아시아 오픈 RAN 아카데미(Asia Open RAN Academy), 세부 파이썬 사용자 그룹(Cebu Python Users Group), 목표지향형 ICT 책임자 연맹(League of Goal Oriente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Officers, Inc.), 모질라 필리핀(MozillaPH), 필리핀 사이버보안 전문가 협회(Philippine Institute of Cyber Security Professionals), 언커넥트닷오알지(Unconnected.org), 필리핀대학교 컴퓨터과학 길드(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Computer Science Guild), 사용자 경험 필리핀(User Experience Philippines), 위키 필리핀 협회(Wiki Society of the Philippines)가 서명에 참여했다.

전체 35개 서명 단체를 마무리 짓는 나머지 단체로는 진보적 통신 협회(Association for Progressive Communications), 베타 인터넷 PH(Better Internet PH), 데모크라시넷(Democracy.net.PH), 미디어 대안 재단(Foundation for Media Alternatives), 아시아 사회적 기업 연구소(Institute for Social Entrepreneurship in Asia), 인터넷 소사이어티(Internet Society), 인터넷 소사이어티 필리핀 지부(Internet Society - Philippines Chapter), 그리고 사마한 nang 낙카카이상 팜틸라 nang 판타위드(Samahan ng Nagkakaisang Pamilya ng Pantawid)가 있다.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economy/2025/06/25/681490/35-groups-call-for-signing-of-konektadong-pinoy-bill/>

This KCCP E-Newsletter is supported by:



BDO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합니다

bdo.com.ph **We find ways[®]**

BDO Unibank is regulated by the Bangko Sentral ng Pilipinas. <https://www.bsp.gov.ph>
For concerns, please visit any BDO branch near you or reach us thru any of the channels listed on our website: <https://www.bdo.com.ph/consumer-assistance>.
Deposits are insured by PDIC up to P500,000 per depositor. The BDO, BDO Unibank & other BDO-related trademarks are owned by BDO Unibank, Inc. All Rights Reserved.